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9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육군대장과 전선포병부대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또다시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은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불의적인 군사적대응타격능력을 점검하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감시소에서 총참모장에게 전투정황을 제시하시고 훈련을 지켜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지켜주신 훈련혁명의 불길, 전투력 드높이 혁명의 총창을 더욱 날카롭게 사격구령이 떨어지자 일제히 섬멸의 강화의 불바람속에서 멸적의 기세 버려가고있는 용감한 전선포병들은 포문을 열고 불을 토하였다.



전투실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백발백중의 명중포성을 높이 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작전동원준비상태가 완벽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에서 포병훈련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한다고 하시면서 포병훈련의 질을 높이고 실전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병의 위력이자 우리 군대의 위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 포병무력을 누구나 두려워하는 세계최강의 병종으로 강화하는것을 주체적혁명무력건설 로선의 제일중대과업으로 내세우고 계속 즐기차게 투쟁해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3월 12일 조선인민군 제7군단과 제9군단 관하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시였다.

포사격대항경기는 조선인민군 제4차 포병대회에서 제시된 조선로동당의 포병무력강화방침을 관철해가고있는 군단별 포병무력의 싸움준비실태를 불의에 선택적으로 검열판정하여 전반적 포병무력을 다시한번 각성시키며 포병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훈련을 실전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는 불씨를 지켜 올리는데 목적을 두었다.

경기는 추첨으로 정한 사격순차에

따라 군단들에 장비된 각종 구경의 포들로 섬목표를 사격한 다음 사격 성적과 화력임무수행에 걸린 시간을 종합하여 승패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포사격대항경기진행순차와 방법에 대한 보고를 료해하시고 경기를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시에 따라 군단장들이 감시소에서 포병화력을 직접 지휘하였다.

군단장들의 사격구령이 내려지자 하늘땅을 진감하는 포성이 울부짖고 섬멸의 포구마다에서는 일당백사상이 그대로 불줄기가 되어 내뿜었으며 목표점은 순간에 불바다로 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총참모장은 경기 결과에 대한 총참모부의 평가를 보고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불의에 조직된 군단별 포사격대항경기에 참가한 용감한 포병들의 전투적열의와 자세에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포병 훈련의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연구하고 실전화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훈련요구에 대하여 다시금 설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모든 포병들이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갖추려면 이러한 훈련을 정상화하며 앞으로 군단별 대항경기를 자주 조직하여 지휘관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승병심을 불러 일으켜주는것이 좋다고, 총참모부가 앞으로 오늘과 같은 방식의 훈련을 자주 조직해야 전반적무력의 지휘관들이 우리 당의 포병중시사상을 잘 알고 포병 리용에 대한 군사적안목을 높일수

있으며 포전술과 포사격에 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훈련에서의 사격결과를 단순한 명중확률이 아니라 우리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에 대한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관점과 립장과 태도의 반영이며 자기 당과 자기 인민, 자기 조국에 대한 충성심의 높이를 보여주는 척도로 된다고 하시면서 포병들은 포병의 위력이자 인민군대의 위력이라고 한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자기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총열기해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의 훈련이 인민군대 전반적포병무력을 다시한번 각성시키는 계기로, 훈련열의와 승병심이 비등되는 계기로 되기 바란

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포병싸움준비이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라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모두가 포병무력강화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설데 대한 문제, 모든 포부대들의 기동력을 최대한 높이고 포사격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구분대들마다에서 화력복무동작을 규정대로 전투적맞이 나게 진행하도록 훈련요구성을 높일데 대한 문제, 현재 장비된 포들의 전투동원준비를 항시적으로 완벽하게 갖추데 대한 문제,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훈련형식과 내용, 방법을 부단히 실전화하는 방향에서 개선할데 대한 문제 등 주체적 포병무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군사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 4월 남북련석회의제안을 적극 지지하여

남북겨레를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민족의 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남녘의 동포들이 있었다.

해방후 이듬해인 주체35(1946)년 1월 초 어느 날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며칠전에 만나주시었던 서울 신문사 기자들을 또 다시 만나주시었다.

모소 저택의 문밖에까지 나오시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에 이끌리어 방안에 들어선 기자들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깨끗하고 소박하다는 것 외에 달리는 표현할수 없는 방안에는 낫은 책상, 그 옆에 나란히 놓여있는 책장과 신문걸개, 이것이 가구의 전부였기때문이었다.

그이께서는 《방이 추운데 이리 가까이 오시오. 더운데 있던본들이 어디 견딜만 합니까?》라고 하시며 그들을 방 한복판에 놓인 화로걸로 안내하시었다.

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처럼 스스로 열었다 화로걸에 둘러앉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을 둘러보시며 《기자동무들이 곧 떠난다지요? 돌아가는라고 또 고생하시겠소.》라고 교시하시면서 그들에게 전년에 발표된 모스크바3국외교회의결정을 지지하는 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을 읽었느냐고 물으시고나서 모스크바3국외교회의결정내용과 그 결정을 지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알기 쉽게 교시하시었다.

잠시후 점심상이 들어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 우리 점심이나 같이 들시오. 아무것도 없지만...》 하시며 먼저 자리를 잡으시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다가 점심을 먹고왔다고 사양하는 그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무슨 점심을 벌써 먹었겠는가고, 그러지말고 같이 들자고 하시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너무나 겸손하고 평범하신 생활에 기자들은 머리가 숙여지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차려들여온 점심상이란 온반 한그릇에 동치미 한보시...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대접이 이래 안됐소. 변변치 못하지만 들어주시오. ...우리 그저 이렇게 삽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그들은 눈물이 펴물었다. (세상에 볼도 없는분이시다!)

기자들은 몇번이나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식사를 끝마치신 후 조용히 교시하시었다.

《우리들이 비록 서울에는 가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남조선동포들에게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은 북조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빨치산투쟁을 할 때도 전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였지 결코 북조선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현관앞까지 나오시어 울먹거리며 작별의 인사를 올리는데 그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시면서 《아무래도 밤에 넘어야 할텐데 조심하 하시오. 요새 날씨도 잔대...》라고 하시며 만걸을 떠나는 자식을 넘겨하시듯 그들의 몸차림까지 눈여겨보시었다.

남조선기자들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강하실것을 축원하면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렸다.

그날 오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헤어질 때 그들이 입고 있던 몸차림이 마음에 걸리시어 털외투와 털신을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털외투와 털신으로 몸을 감싸고 귀로에 오른 그들은 어버이의 크나큰 은정을 가슴뜨거이 느끼며 38° 선을 넘었다.

본사기자

1948년 3월 9일에 열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는 외세의 《단선단정》 음모를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과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남북통일 실현을 위하여 통일적민주주의정부를 세우야 한다는 통일방안이 제시되었다.

남조선에서 실시되는 《단독선거》를 반대배격하며 조국통일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북과 남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할 목적으로 평양에서는 1948년 4월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획기적인 발기가 제시되었으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제26차회의에서는 련석회의소집을 제의하는 공개서한이 발표되었다.

남북련석회의제안이 알려지자 남조선인민들은 크나큰 감격을 안고 그를 열렬히 지지하였다.

남조선의 거의 모든 애국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 인사들은 앞을 다투어 성명서, 결정서 등의 형식으로 남북련석회의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1948년 3월 29일에 남조선민전 산하 정당, 사회단체들은 대표자련석회의를 열고 남북련석회의를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족자주련맹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련석회의소집제와 관련한 문제를 심의한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 《이제 우리는 극도량단과 민족분열의 최대의 위기에 도달하였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신생의 활로를 개척하는데는 오직 민족자주의 원칙에 의하여 조국의 통일자주와 민주독립을 추진하여야 되겠다. 우리 민족중앙위원회는 남북련석회의의 모든 애국적민주력량의 단결을 강화할 목적으로 평양에서는 1948년 4월에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획기적인 발기가 제시되었으며 북조선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제26차회의에서는 련석회의소집을 제의하는 공개서한이 발표되었다.》

4월 3일에는 민주혁명당 당수 등 5명의 발기로 《한국독립당》을 포함한 중간 및 우익의 100여개 정당, 사회단체대표 200여명이 모여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하고 3개 조항의 강령을 채택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애국력량을 집결하여 민족분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이 지적되어 있었다. 회의에서는 《단선단정》에 항의하는 결의문과 남북련석회의추진에 관한 특별결정서를 채택하였다.

남조선의 언론계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적위기를 타개할데 대한 공화국의 제안을 널리 선전하면서 남북련석회의에 대한 지지립장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되자 외세와 그 앞잡이들은 남북련석회의를 파란시키기 위하여 더욱 발악하여나섰다. 련석회의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공공연하게 위협경고하고 모해였으며 특히 우익정계인사들의 참가를 파란시키려고 갖은 압력을 가하여나섰다.

그러나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그 어떤 발악도 온갖 난관을 물리치며 통일적자주독립국가를 세우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노력을 막을수 없었다.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대중은 남북련석회의를 지지하는 투쟁을 외세와 그 앞잡이들이 강요하는 《단독선거》의 《선거자 등록》을 거부하는 대중적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였다. 그들은 분렬주의세력의 폭압을 박차고 등록거부, 시위, 배라살도, 《선거사무소》 습격 등 여러가지 형태로 파란한 투쟁을 벌였다.

우익정계인들도 외세의 압력을 민족적립심으로 견결히 물리쳤다.

김구는 북으로의 출발을 앞두

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이 아무리 단선단정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자손만대에 남겨줄수 있는 정부가 될수 없는것이다. 나는 외국인의 유혹과 국내 일부 사람의 반대를 물리치고 혼연 남북회담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언명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지지와 전민적적인 거세찬 지향에 고무된 남조선의 정계인사들은 앞을 다투어 회의참가를 위한 북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예정인원을 훨씬 넘는 수의 대표들이 38° 선을 넘게 되었다.

드디어 온 민족의 관심속에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 695명의 참가에 련속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1948년 4월 19~23일)가 평양에서 열리게 되었다.

회의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밝힌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서는 민족분열을 폐하는 외세의 책동이 폭로되고 우리 민족앞에 나서는 최대의 과업은 외세가 감행하려는 남조선 《단독선거》를 저지파란시키고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적중앙정부를 세워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것, 이를 위하여

전민족이 거족적인 반미투쟁을 벌일데 대한 문제 등이 강조되었다.

남북련석회의는 북과 남의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 기업가, 상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민족의 의사를 대표하여 참가한 전민족회의의 성격을 띠는 회의였다. 뿐만아니라 북과 남의 각급, 각과가 참가하여 민족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의한 남북정치협상회의의 성격

을 띠는 회의였다.

련석회의의 이후 《5.10단독선거》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시위투쟁과 불기가 남조선전역에서 일어났으며 결국 《5.10단독선거》는 완전히 파란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본사기자 김영진



4월 남북련석회의가 진행된 평양의 모란봉극장

공화국의 품에서 인생을 꽃피우고 이름을 남긴 사람들중에는 재능있는 화가, 영화연출가였던 강호선생도 있었다.

8.15후 서울에서 조선프로레타리아연극인동맹 서기장으로 일하다가 1946년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는 미술창작과 영화연출분야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었다.

그는 민주건설시기에 북조선연극인동맹 서기장, 국립예술극장 총장으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조선화보사(당시) 사장으로 일하였다.

전후에는 조선국립영화촬영소 연출가 및 무대미술가로, 평양미술대학 영화 및 무대미술과(당시) 강좌장으로 사업하면서 여러편의 영화미술 및 연극무대미술을 창조하고 교재들을 집필하였다. 그는 가극 《금강산팔선녀》(1947년), 연극 《춘향전》(1948년), 《다시는 그렇게 살수 없다》(1955년), 《1211고지》(1958년), 《조선의 어머니》(1959년) 등의 무대미술과 예술영화 《포대시 전선으로》(1952년)의 영화미술을 맡아하였다.

그가 연출과 미술을 담당하였던 예술영화 《포대시 전선으로》는 제8차 카를로비바르 국제영화축전에서 《자료를 위한 투쟁상》을 수여받았다.

그의 영화 및 무대미술작품들은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이 용케 결합되고 세부형상이 우수한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저서로는 단행본 《무대미술의 기초》(1963년), 《해방전 우리 나라 살림집과 생활양식》(1980년), 《해방전 우리 나라 옷양식》(1981년) 등이며 그밖에 문예평론, 논설들이 있다.

이렇게 영화 및 무대미술 창작과 후비육성사업을 적극 벌림으로써 공화국의 미술발전에 이바지한 강호선생의 재능은 과연 천성에 기인된것이었는가.

그는 1908년 8월 경상남도 창원군 진전면 불곡리(당시)의 가난한 소작농의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그때는 조선의 어느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였지만 그의 집안형편도 말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우로는 누이 자 다섯이나 되었다. 생계가 어려운 속에서도 부모들과 누이들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며 남동생인 그를 어떻게 하나 공부시킴으로써 자기의 이름을 강호로 고치였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재능있는 화가, 영화연출가로

로 교토중학교와 교토회화전문학교를 다니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살길 없어 현해탄을 건너온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잔인하게 학살하는 왜놈들의 물골은 그로 하여금 민족의 님이란 무엇인가를 절감하게 하였으며 설사 목구멍에 거미줄이 씌다고 해도 제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것을 뼈에 새겨주었다. 원래 그의 부모들이 지어준 이름은 강윤희였는데 이때부터 그는 험악한 세월속에서도 호방이처럼 굳세게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자기의 이름을 강호로 고치였다.

그후 그는 서울로 돌아와 당시 조선영화예술협회 연구원에 들어갔다. 이곳에서 강호는 연출수업을 받게 되었다.

강호는 1927년에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에 가입하여 미술부를 책임지고 사업하였으며 영화부에 관여하게 되었다.

라운유를 비롯한 여러 친지들과 함께 그는 민족영화의 님을 지키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바치였다.

1928년 순수 회화보다도 적극적이고 실험성이 높은 예술창작을 희망했던 강호는 정열적인 창작활동으로 마침내 예술영화 《암로》를 내놓았다.

그 자신이 직접 영화문학과 연출, 영화미술을 담당하여

만든 이 영화는 비판적사실주의작품으로서 당시 인민들속에서 반일애국주의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착취계급에 대한 비관적안목을 넓히게 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정의와 진리를 갈망하던 그는 불합리한 사회현실의 부정적면면을 비판폭로하는데 머무름것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항거의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결심을 굳히고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프로레타리아문학창작으로 한걸음 더 전진하였다.

그는 1931년 영화문학 《늘어나는 무리》를 가지고 직접 연출, 영화미술, 주역까지 담당하여 조선에서 프로레타리아영화예술의 초기작품으로 되는 《지하촌》을 창조하였다.

1932년 그는 카프사건으로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끌려가 오레동안 감옥살이를 하였지만 끝까지 자기의 신념과 지조를 지켰다.

1935년 3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강호는 부산에서 간판집 파공으로, 신문사 광고부원으로 도안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소설살필도 하였다.

그후 조선일보사에서 일하던 그는 일제가 날조한 공산주의협회사건(일명 왜관농민야학사건)으로 체

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두 번째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4년동안 옥살이를 하고 출옥한 강호는 《불은분자》의 딱지가 붙은것으로 하여 더는 영화계에 나설수 없게 되었다.

강호는 분명 제 나라, 제 땅이었건만 희망을 꽃피우기는 커녕 술조차 제대로 할수 없는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며 그의 생계유지를 위해 해본 적도 없는 무대미술에 뛰어들게 되었다.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 하였다.

《여러 전선이 나를 부르 고있다. 보다 새롭고 성과 있는 무대미술을 창작하고 수채화와 삽화를 더 충실하게 공부하고 미술사를 연구 하고 영화문학과 희곡도 습작하고 기회만 있으면 영화연출도 하겠다란것이 공화국창건 10주년을 맞이하는 내 결의로 되고있다. 이것은 부질없는 욕심이 아니다. 모든 가능한 조건은 열려져있고 내 심장은 아직도 뛰고있다.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담는 사회주의조국과 함께 이것도 저것도 하지는 내 창작생활도 성과있게 앞으로 전진할것을 나는 믿고있다.》

해방전 식민지예술인의 처지를 페부로 절감하며 살아온 그는 《그 자신이 말했듯이 가능한 모든 조건이 마련된 든든한 예술전선에서 자기의 모든 재능을 남없이 꽃피우고싶은 충동을 억제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는 후대교육사업에도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였다.

그는 무대미술 및 영화미술교육사업에서 이룩한 공로로 하여 1961년 4월 예술학 부교수의 학직을 수여받았다.

그는 신병으로 교단을 내려 후생의 말년까지도 영화촬영소의 교문으로 있었으며 서 자기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가 후대들을 위하여 남긴 귀중한 유산이라고 말할수 있는 도서들인 《해방전 우리 나라 살림집과 생활양식》, 《해방전 우리 나라 옷양식》은 일흔이 넘는 나이에 오래동안 앓고있던 신병으로 운신조차 하기 힘든 상태에서 집필한 도서들이다.

그는 건강을 걱정하는 자식들에게 참고서집필은 자기의 의무라고, 변천하는 세월과 더불어 후대들을 위해 꼭 해놓아야 할 자기의 인생과 제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의 북부지대인 삼수감산의 산간오지로부러 개성의 송악동에 이르기까지 지평이에 몸을 의지하면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피약별속에 쪼그리고앉아 삽화를 그리고 밤마다 모진 병마를 이겨내며 한자한자 집필하였다.

70고령에 신병으로 신고하는 그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킨 사람은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내가 공화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목숨은 물론 재능이나 유산도 없었을것이다. 나의 작은 재간이나마 민족을 위한 길에 바칠수 있었던것은 다 수령님의 품에 안겼기때문이다.》

본사기자 김영진



강호선 생

잠자던 악녀, 꿈틀거린다

3월 5일은 명숙에서 겨울을 나던 별들이 얼음이 녹고 우리가 울며 비가 오는데 놀라 잠에서 깨어 꿈틀거린다는 경칩이다.

동면하던 별들이 꿈틀거리듯이 봄이 오면 겨울 내내 잠자던 뱀들도 깨어나 굴뚝으로 슬금슬금 기어오른다. 봄이 와서인가, 남조선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계열이

개 꼬리 삼년 가도...

은갖 죄악을 저질러 수년이 지난 오늘도 감옥신세에서 벗어 못나는 특등범죄자가 《유신》이라는 편지를 세상에 내놓으면서 발표한 것은 기괴한 현상이다.

역시 남조선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회비극이고 낮가죽 두꺼운 악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편지내용을 열 것 들여다 보아도 반성의 기미라고는 꼬물꼬물 안 보이고 자기는 전부 잘했는데 초보를 든 《과과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다던 것이 오는 4월의 《홍신》을 통해 뒤집어엎으려는 주문이다.

그의 편지에서는 지금도 변하지 않은 《유신》악녀의 독기가 세계 풍기고있다. 박근혜가 얼마나 큰 역사의 죄인인가.

《유신》시대부활을 내걸고 남조선의 정치체제를 거꾸로 돌리고 경제와 민생을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었던 악녀이다. 외세굴종과 동족대결책동으로 전쟁위험을 최대로 높인 대결광이다. 그가

그 악녀에 그 심복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곁에 착박혀 얼굴이 검검하게 질러 짙소리로 내지 못하고있던 박근혜가 이번에 용기를 내어 《유중서신》이란 편지를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만에는 믿는 세력이 있기때문이다.

악녀를 아직도 로폭적으로 신주모시듯 하는 《자유통일당》, 《친박신당》이 정계 무대에서 활개치는 것은 물론이고 제1야당이라고 하는

다가오고있어서인가. 그 천성과 기질이 뱀처럼 차고 독해 《독사》, 《악녀》로 불리운 박근혜도 감옥안에서 오래동안 동면하다가 기지개를 폈다.

그림자처럼 따르는 하수인을 내세워 이른바 자기의 《유중서신》이란 편지를 세상이 보란듯이 발표한 것이다.

가라앉은 《세월》호와 함께 바다속에서 살려달라 울부짖는 수백명의 아이들을 내버려두어 죽게 만든 그 치명력은 죄악 하나만으로도 일생 감옥살이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더우기 《대통령》 병거지를 쓰고 일개 무당인 최순실의 꼭두각사가 되어 놓아난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뇌리에 두고두고 수적으로 기억되어있다. 그래서 분노한 인민들이 초콜바다를 펼쳐 태워버린 것이 저주로운 박근혜 《정권》이다.

그때로부터 수년이 지났지만 이 살인악녀의 본성은 후호도 변하지 않았다. 그동안 감옥안에서 반성과 뉘우침을 한 것이 아니라 분노의 이를 갈고 복수의 칼만 비껴온 것이다. 초콜바다에 대고 침을 뱉는 악녀.

개꼬리 삼년 가도 황모가 될수 없다고 했는데 역시 변할수 없는 것이 악녀의 본성이고 기질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악녀가 다시 독을 쓰며 감옥안에서 《수렴청정》을 개시했다며 허를 찔렀다.

《미래통합당》도 사실상 박근혜를 추종하는 적폐정당이 라는 것을 남조선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대표자리에 앉아있는 황교안은 오래동안 박근혜를 추종하며 앞잡이노릇을 해온 인물이다.

그가 박근혜정권시기 법무 장관자리에 올라앉아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정윤희 《국정》 개입사건을 깔아뭉개고 서울시공무원간

첩사건을 조작하는 등 독재 《정권》유지의 돌격대로 활약하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또한 박근혜에게 정면도전한 통합진보당을 《중북세력의 집합체》로 몰아붙여 당을 끝끝내 해산시키는데 단단히 환호한 황교안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남조선 각계 각층을 중심으로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가진 청와대의 앞잡이, 박근혜가 가려우려는 부위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환관》으로 막대한 권력을 휘둘러온 것이다.

박근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동을 앞장에서 강행하였으며 박근혜, 최순실 추문사건과 관련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수사기간 연장을 필두로 하는 가짜 언론은 권력을 쫓아 날아온 정치부나비의 한쌍이었다. 그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가로챈 제 예비처럼 갖은 음모적방법으로 《대통령》 감투를 제 머리위에 올려놓고 야말았다.

민심의 사형선고를 오래전에 받은 종죄인의 몸임에도 선거철이 다가오자 권력광기

이런자이기에 박근혜가 감옥에 갇히 《새누리당》내의 친박세력이 밀어주어 대표자리에 올려앉힌 것이다. 그동안 황교안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는 박근혜와 거리가 먼듯이 뉘우쳐 피워왔지만 그것은 성난 민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한 연막이었다.

박근혜의 《환관》이었던 황교안, 그의 바지를 벗겨서 보면 아직도 속에서는 악녀의 역할 구린내가 풍기고있다. 이런자이기에 박근혜의 《유중서신》이 공개되자마자 《유중서신》에 고초를 시달리면서도 두터져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서신, 《이나라, 이국민을 지켜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의 가슴을 깊이 울린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박근혜가 감옥안에서 《수렴청정》을 하려 한다면 그가 앞에 내세우려 하는 것이

《미래통합당》이고 그 두목인 황교안인 것이다.

악녀의 《유중서신》은 본격적인 정치계열을 맞아 《미래통합당》과 황교안에 기대며 새로운 쿠데타지령이었다.

적폐세력들의 쌍피소리

감옥에서 귀신처럼 처박혀있던 박근혜가 보수세력들에게 《유중서신》이란 편지를 보낸 목적은 너무도 명백하다. 자기의 손때묻은 줄개들을 자기들 중심으로 뭉치게 해서 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국회》의석을 따내게 하자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정권》을 탈취하여 《유신》독재의 피비린내 풍기는 《박근혜공화국》을 세워보자는 것이다.

몸에는 비록 수의를 걸쳤어도 역도년의 권력광신기질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박근혜의 죄악에 찬 정치인생은 권력을 쫓아 날아온 정치부나비의 한쌍이었다. 그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가로챈 제 예비처럼 갖은 음모적방법으로 《대통령》 감투를 제 머리위에 올려놓고 야말았다.

민심의 사형선고를 오래전에 받은 종죄인의 몸임에도 선거철이 다가오자 권력광기

적인 정치계열을 맞아 《미래통합당》과 황교안에 기대며 새로운 쿠데타지령이었다.

가 다시금 꿈틀거리 드디어 본성을 드러낸 박근혜이다. 그는 《유중서신》을 통해 감옥밖에 있는 황교안과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친박세력들에게 조물민심을 정키쿠데타로 뒤엎으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박근혜는 악녀와 《미래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추종세력들은 너무도 신통하게 뒹아있다. 말하는것도, 노는 것거리 하나하나도, 종당에 추구하는것도... 한때 초콜바다를 두터워 올랐고있다가 다시 머리를 쳐든 적폐세력들은 오는 《국회》의원선거를 《정권》을 다시 탈취하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있다.

감옥안의 박근혜와 감옥밖에 있는 황교안과 《미래통합당》이 한목소리로 《정권》탈취의 쌍피리를 불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남조선 현실이다. 본사기자 안권 일

최근 남조선에서 《신천지교회》를 탈퇴한 한 사람이 《신천지교회》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2007년 《한나라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부추겼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였다.

해당 문서에는 2007년 《신천지 대외활동협조안내》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한시적으로 가입하여 준비해라 한다.》는 내용과 당원가입절차, 당비납부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적혀있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문서에는 《신천지교회》 각 지파에서 1만 670명을 동원할것이라는 구체적인 인원배정표가 있을뿐 아니라 당비를 《신천지총회》에서 지급할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되어있었다고 한다.

사기와 협정으로 민의를 위곡하고 인권을 내버린 사이비종교단체까지 끌어들이는 사이비종교단체인 《신천지교회》를 강제적으로 수사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종교단체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밀접한 유착관계를 가지고있었다는 것

문제는 《COVID-19》의 남조선으로의 전파가 대부분 《신천지교회》에 의해 발생한것이고 특히 집단 예배와 같은 종교의식때문에 대규모의 집단감염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천지교회》는 그 무슨 《종교의 신성함》을 구실로 당국의 《COVID-19》 방역협조요구에 신도들과 교회소속시설들을 제대로 기

용과 당원가입절차, 당비납부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적혀있다고 한다.

그리고 해당 문서에는 《신천지교회》 각 지파에서 1만 670명을 동원할것이라는 구체적인 인원배정표가 있을뿐 아니라 당비를 《신천지총회》에서 지급할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되어있었다고 한다.

사기와 협정으로 민의를 위곡하고 인권을 내버린 사이비종교단체까지 끌어들이는 사이비종교단체인 《신천지교회》를 강제적으로 수사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종교단체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밀접한 유착관계를 가지고있었다는 것

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사실 얼마전에도 남조선에서는 《신천지교회》 교주가 2012년 《홍신》을 앞두고 《새누리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홍신》을 창당할 것을 지어주었고 지난 3월초 집단감염확산과 관련한 사죄기회 《박근혜시계》를 차고나온 문제와 관련하여 터진 보수패당과 《신천지교회》와

의 관계의 후, 2002년 《대선》때 당시 보수 후보인 리 회장의 신

거운동을 지원한 의혹, 박근혜정권시기 대구 《신천지교회》에 대해 100만US\$의 자금을 지원한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철폐되지 않고 있는 《미래통합당》 패들은 그때마다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하면서 의혹록자들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표모고 발하겠다고 떠벌 뒤편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인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도 없이 부정부패, 인륜파괴에 대한 광분하는 사이비종교무리들과다 서슴없이 손을 잡았던 《미래통합당》이야말로 민심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정철주

꼬리가 잡힌 보수패당의 더러운 행적

록하지 않은 명단들을 마지못해 제출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진행된 종교활동들을 숨기까지 하였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물론 종교계에서도 《COVID-19》 확산의 주범으로서 그에 대한 반성조치 하지 않고 오히려 방역사업에 장애를 조성하고있으며 인권을 모독하는 사이비종교단체인 《신천지교회》를 강제적으로 수사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종교단체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밀접한 유착관계를 가지고있었다는 것

확대되고있는 《COVID-19》 피해, 그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

남조선에서 《COVID-19》 감염자 7 869명, 사망자 67명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12일 0시 기준 《COVID-19》 감염자가 7 869명 늘어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이후 114명의 비루스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추가된 감염자들중 81명이 대구, 경상북도지역(대구 73명, 경상북도 8명)에서 나왔다. 사망자는 12일 0시 기준 66명이었지만 오전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제생병원에서 82살 남 노환이 또 숨져 모두 67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여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보림회사와 관련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

구로 1동에 사는 보림회사의 52살 남 노환직인과 이미 확진 받은 다른 직인의 70살 남 아버지가 추가로 비루스에 감염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대문구와 마포구에서도 추가감염자가 나와 서울지역에서 보림회사와 관련한 확진자가 97명이며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계속 발생하여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있다.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에서도 비루스 감염자가 잇달아 나오고있다.

11일 하루동안 5명의 공무원이 추가로 확진받았다. 청사안에 있는 부, 처에서 8명이고 밖에 있는 부, 처들까지 합치면 10명이다. 지금까지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한 부, 처는 보존처, 보

미국에서 《COVID-19》 감염자 1300여명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1일 현재 이 나라에서 《COVID-19》 감염자 수가 1 312명,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여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보림회사와 관련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

구로 1동에 사는 보림회사의 52살 남 노환직인과 이미 확진 받은 다른 직인의 70살 남 아버지가 추가로 비루스에 감염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대문구와 마포구에서도 추가감염자가 나와 서울지역에서 보림회사와 관련한 확진자가 97명이며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계속 발생하여 100명을 넘어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1일 현재 이 나라에서 《COVID-19》 감염자 수가 1 312명,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여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보림회사와 관련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다.

구로 1동에 사는 보림회사의 52살 남 노환직인과 이미 확진 받은 다른 직인의 70살 남 아버지가 추가로 비루스에 감염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서대문구와 마포구에서도 추가감염자가 나와 서울지역에서 보림회사와 관련한 확진자가 97명이며 앞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계속 발생하여 100명을 넘어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1일 현재 이 나라에서 《COVID-19》 감염자 수가 1 312명, 사망자 수는 38명으로 늘어났다.

유럽에서 《COVID-19》 감염자수 2만여명

유럽대륙에서 11일 현재 《COVID-19》 감염자가 2만명 넘게 감염되었다. 이 말 리 아 에 서 는 《COVID-19》가 전파된 이래 확인된 감염자수가 1만 2 462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수는 지난 하루동안 196명 더 늘어났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감염자수가 전날보다 약 500명 더 늘어나 2 281명에 이르렀으며 에스파냐에서는 그 수가 2 181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나 라 들 에 서 는 《COVID-19》에 의한 사망

세계보건기구 《COVID-19》를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

《COVID-19》가 세계적 범위에서 계속 전파되고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11일 이 비루스감염증을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선언하였다. 기구 총국장은 그러나 이 유행병은 렉시상 통제 가능한 첫 세계적인 유행병으로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중국에서 이 전염병

이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고있으며 약 2만 5 000명이 격리되어있다. 파키스탄에서 20명, 브루나이에서 11명, 아프가니스탄에

서 7명, 스리랑카에서 2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라이와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는 《COVID-19》에 의한 사망자들이 발생하였다.

이 말 리 아 에 서 는 《COVID-19》가 전파된 이래 확인된 감염자수가 1만 2 462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수는 지난 하루동안 196명 더 늘어났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감염자수가 전날보다 약 500명 더 늘어나 2 281명에 이르렀으며 에스파냐에서는 그 수가 2 181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나 라 들 에 서 는 《COVID-19》에 의한 사망

이 말 리 아 에 서 는 《COVID-19》가 전파된 이래 확인된 감염자수가 1만 2 462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수는 지난 하루동안 196명 더 늘어났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감염자수가 전날보다 약 500명 더 늘어나 2 281명에 이르렀으며 에스파냐에서는 그 수가 2 181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나 라 들 에 서 는 《COVID-19》에 의한 사망

이 말 리 아 에 서 는 《COVID-19》가 전파된 이래 확인된 감염자수가 1만 2 462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수는 지난 하루동안 196명 더 늘어났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감염자수가 전날보다 약 500명 더 늘어나 2 281명에 이르렀으며 에스파냐에서는 그 수가 2 181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나 라 들 에 서 는 《COVID-19》에 의한 사망

이 말 리 아 에 서 는 《COVID-19》가 전파된 이래 확인된 감염자수가 1만 2 462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수는 지난 하루동안 196명 더 늘어났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감염자수가 전날보다 약 500명 더 늘어나 2 281명에 이르렀으며 에스파냐에서는 그 수가 2 181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나 라 들 에 서 는 《COVID-19》에 의한 사망

이 말 리 아 에 서 는 《COVID-19》가 전파된 이래 확인된 감염자수가 1만 2 462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수는 지난 하루동안 196명 더 늘어났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감염자수가 전날보다 약 500명 더 늘어나 2 281명에 이르렀으며 에스파냐에서는 그 수가 2 181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나 라 들 에 서 는 《COVID-19》에 의한 사망

이 말 리 아 에 서 는 《COVID-19》가 전파된 이래 확인된 감염자수가 1만 2 462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수는 지난 하루동안 196명 더 늘어났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감염자수가 전날보다 약 500명 더 늘어나 2 281명에 이르렀으며 에스파냐에서는 그 수가 2 181명으로 급증하였다. 이 나 라 들 에 서 는 《COVID-19》에 의한 사망

이 말 리 아 에 서 는 《COVID-19》가 전파된 이래 확인된 감염자수가 1만 2 462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8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수는 지난 하루동안 196명 더 늘어났다고 한다.

극악무도한 일본의 통감통치

감출수 없는 일본의 과거죄악

일본의 조선침략과 수선전에 걸친 식민지통치는 동시 고금 어디에도 그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가혹하고 야만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감통치 내막을 헤쳐보아도 잘 알수 있다.

1905년 남장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해낸 일본은 그것을 러대고 1905년 12월 《칙령》 제 267호로 33개 조항의 《통감부 및 러시아관제》를 공포하였다.

그 다음 해인 1906년 2월 1일에는 서울에 정식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통치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통감부설치와 통감통치는 본질에 있어서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관통하게 유린말살하고 전 지역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감은 당시 조선에서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빼앗아가진 최고통치자였다.

통감은 왜왕의 직속으로 되어 조선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외교관계문제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약들을 정지, 취소시킬수 있는 권한과 통감부령을 발표하여 조선사

람들을 마구 잡아들일수 있는 권한, 무력사용을 명령할 권한 등을 가지고있었다.

통감부의 설치로 말미암아 당시 조선에서 최고통치자는 조선봉건정부의 황제가 아니라 일본의 통감이었다. 그것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통감부였다.

일본은 통감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군대와 헌병, 경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어 조선에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전변시키는 한편 조선봉건정부의 모든 실제상권한을 박탈하였다.

간악한 일본은 황궁에 대한 《자유출입》을 중지시킨다는 이른바 《금금령》을 《칙령》으로 발표하도록 강요하고 일본경찰들이 황궁과 황제에 대한 《호위》를 맡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저들의 승인이 없이는 조선사람들이 황제를 만날수 없게 하여 황제의 손발을 엮어매 놓았다.

일본은 통감통치시기에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뜨였다. 이 시기 일본은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방패로 되는 조선의 반일애국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학살하였다.

일본은 《폭도토벌》의 구실밑에 조선의 주요도시들은 물론 산간벽지에까지 폭압부력을 파견하여 의병부대들에 대한 야수적인 《토벌》을 강행하였으며 의병들이 지나간 마을이라고 하여 모조리 불살랐고 의병들과 령계를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총살하였다.

통감통치시기 일본은 조선 제자들의 원로원칙지, 상공판매시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미쳐날뛰었다. 이른바 《부리종진》이라는 구실밑에 1906년 6월 《광물채굴법》을 조작한 일본은 조선에서 금, 은, 동, 석탄 등 지하자원을 대대적으로 약탈하여갔으며 1908년 11월에는 《한일언어협정》을 조작하고 수산자원을 마구 끊어갔다.

일본은 1908년 12월 악명 높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조작하고 조선의 토지를 마음대로 강탈하였으며 1909년 10월에는 《한곡은행》 등을 조작하여 조선의 금융분야를 완전히 틀어쥐고 민족경제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일본은 이 시기 우리 민족의 애국심과 민족성을 거세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을 발표하고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였으며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애국적이며 반일적인 사립학교들을 강제적으로 폐쇄하였다.

뿐만아니라 이 시기 일본은 조선의 문화재들도 수없이 파괴, 약탈하였다.

통감통치시기 일본의 범죄행위를 꼽자면 끝이 없다. 일본은 통감통치시기를 포함한 40여년간에 걸치는 포악무도한 식민지파쇼통치기간 역사에 류례없는 특대형반인륜적죄악을 저질렀다.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통감통치의 죄악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지울수도 감출수도 없는 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여러 나라에서 《COVID-19》를 막기 위한 치료방역사업 강화

호평받는 《은하수》 치료용화장품들

공화국의 평양화장품공장
화장품연구소에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인민들의 기호
에 맞고 건강증진에 좋은 여
러가지 치료용화장품을 적
국 개발하고있다.

이곳 연구소에서 개발한
치료용화장품들은 피부부
호, 로화방지효과만을 가지
고있는 기능성화장품과는 달
리 여드름 등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는것으로 하여 사
람들의 건강과 미용을 도모
해주고있다.

여드름치료용화장품은 항
균, 항염, 항산화작용이 우
수한 발효추출물을 기본으로
하여 각질용해제, 계면활성
제 등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인기가 높다.

이곳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게 여드름
치료용화장품을 살결물과 크
림, 젤형으로 그리고 피부상
태에 따라 모든 피부용, 유
성피부용, 건성피부용으로
개발하였다.

젤형과 공기졸형 두가지
형태로 개발한 탄력제제
는 손발땀이 많은 증상과 액취
증에 대한 치료효과가 높을
뿐 아니라 탐과 냄새억제작용
시간이 길고 사용하기 편리
하다.

항균력이 우수한 활성물질
들과 여러가지 머리칼조리
제 및 영양보습성분들이 풍
부히 들어있는 비듬제거샴푸
와 린스도 머리칼과 머리피
부를 깨끗하게 유지할뿐아
니라 머리칼의 유연성과 광택
성을 보장하면서도 높은 비
듬제거효과를 가지고있다.

미백제들과 영양제들의 작
용으로 피부에 생긴 로화반
점들과 결절들, 검버섯 등을
제거하고 피부를 깨끗하게 해
주는 미백크림(주근깨제거
용), 모기에 의한 피부손상
과 전염병의 전파 및 질병발
생 등을 막고 천연수렴의 청신
한 향기를 내는 모기방지향
수와 모기방지크림 등 치료
용화장품들도 인기가 높다.

이뿐이 아니다.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는
머리카락성장액과 거칠거나 굳
어진 피부, 두꺼워지거나 짜
개진 피부에 효과적인 크림
(굳은살제거용) 그리고 제모
크림, 에기피부용치료크림
을 비롯하여 연구소에서 개
발한 치료용화장품들은 20여

가지에 달한다.
이곳 연구소에서는 동상이
나 동창의 발생원인에 기초
하여 동상방지약제로 많이
리용되고있는 살리칠산 등
치료약제들을 선정하여 동상
방지에 효과가 큰 크림도 개
발하였다.



새로운 배배기술공정들을 새롭게 확립

평양버섯공장에서 버섯재
배기술공정들을 새롭게 확립
하였다.

공장에서는 김일성종합
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쳐 버섯재배의 정보화,
과학화수준을 훨씬 높이
는 한편 농업성 중앙버섯
연구소, 농기계연구소 연
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에 버섯재배, 털곰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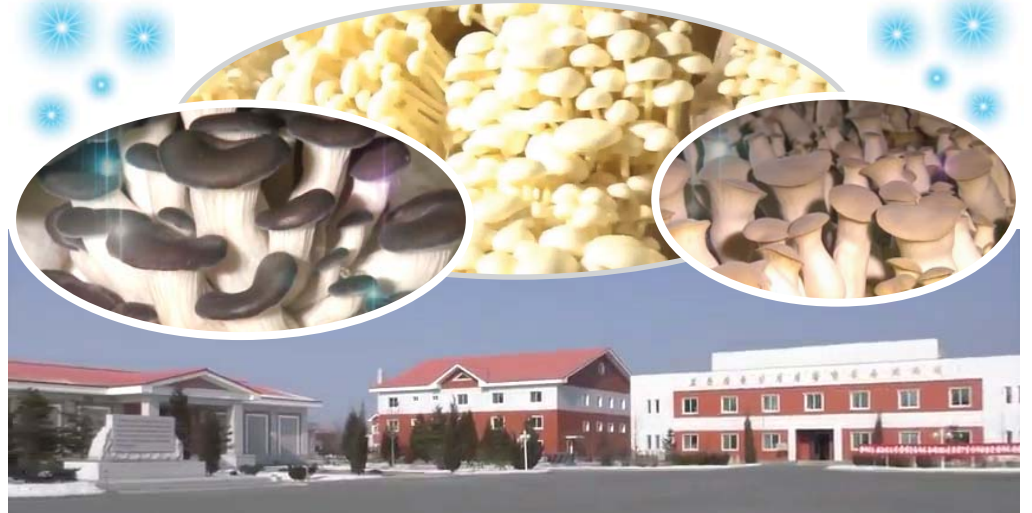
을 비롯한 여러가지 버섯
을 철따라 생산할수 있는
새로운 버섯재배공정을 완
성하였다.

결과 계절적영향에 구애받
이 없이 각이한 종류의 버
섯을 종전보다 1.3배이상 생
산할수 있는 당보를 마련하
였다.

공장에서는 자동과공기,
버섯기질장입기, 버섯용기
세척기, 소독용뽑틀을 자체

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고 생
산실천에 받아들여 발표공
정, 소독공정 등의 자동화,
호흡신화를 보다 완벽하게
실현하였다.

재배장들에 버섯의 생육조
건에 알맞는 온도와 습도,
탄산가스함량, 신선한 공기
를 보장하는 강제식산공보장
체계를 연구도입하여 버섯을
안전하게 증산할수 있는 토
대를 마련한것도 자랑할만



사화

력서의 발전에 기여한 강보(3)

글 전철호, 그림 채대성

김씨는 그때 일을 감회깊
게 돌이켜보고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몸을 풀러
본가에 갓 머느리도 이 소
식을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
나.》

강보의 얼굴이 확 붉어
졌다.

그는 지난해 봄날에 장
가를 들었다. 자기의 학식
을 제자에게 물려주려 예스
다 돌아간 백운동 글방선생
의 손녀에게 장가를 든것이
였다.

《소원대로 력서를 만들
게 되었으니 돌아가신 스승
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분발하여라.》

강보는 백운동 글방선생의
모습을 그려보며 대답했다.
《알겠소이다.》

어떻게 돌아가신 스승의
가르치심을 한시인들 잊
은랴.

백운동 글방의 스승이 아
니었더라면 강보는 력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뜻을 가
지 못했을것이였다.

강보는 글방을 마치고 스
승이 주선해주어 국학에 입
학하였다. 남들은 장차 권
세를 잡을수 있는 벼슬자리
에 올라갔으려고 국자학이나
대학, 사문학과에 들어가
지 못해 몸살을 앓았지만 강
보는 스승이 바라는데로 산
학파를 지망하였다.

산학과에 입학한지 그 이
듬해 스승은 운명하면서 열

심히 배우고 또 배워서 고려
의 실정에 맞는 새 력서를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다.

《학문으로써 남아 20대에
이름을 날리지 못한다면 세
상을 놀래우는 큰일을 하기
어려운 법이나라.》

강보에게는 그때 한 스승
의 마지막말이 귀에 쟁쟁하
도록 못이 배기였다. ...

김씨는 한편으로 아들이
력서만드는것을 너무 쉽게
대하는것 같아 한마디 일
렸다.

《애야, 직을 업수이여기
면 반드시 패한다는 말도 있
다는걸 명심하여라.》

《알겠소이다. 자, 이전
약을 좀 드시오이다.》

약을 받아든 김씨는 고개
를 끄덕였다.

이튿날 태사숙에 출근한
강보는 또다시 력서를 만드
는 일에 몰두하였다.

그는 마침내 소한전으로
다음해에 내놓게 될 새 력서
를 만들어나갔다.

은 태사숙이 명절기분이였
다. 여러해째 절기가 딱바
른 력서를 내놓지 못하여 조
정의 추궁을 받고있던 태사
숙으로서 강보가 력서를
내놓은 날이 곧 명절이 아닐
수 없었던것이다.

새 력서가 나왔다는 소식
을 듣고 임금의 령을 전달
하고 임금을 호위하며 군사
관계의 일을 보는 밀직사
에서 두번째 가는 동지밀직사

사 안향이 직접 태사숙에 나
와 강보를 치하해주었다.

안향은 강보의 스승이기도
하였다. 안향이 바로 지공
거(수석시학관)로서 과거에
서 강보를 제시했었던것이
그가 세 소원대로 태사숙
에 갈수 있도록 천거해주었
던것이다.

조정의 중직이라 할만큼
청렴결백하고 또한 학문을
중시하는 안향을 스승으로
둔것은 강보의 행운이었다.

나라에서는 강보가 만든
력서를 이전에 쓰던 력서의
이름 그대로 《수시력》이라
부르게 하였다.

강보는 력서를 새롭게 만
들어냈으므로 만족해하지
않았다.

보다 더 큰일, 해마다 절
기가 딱바른 력서를 손쉽게
만들수 있게 하는 계산법을
내놓아야 했기때문이었다.

이번에처럼 복잡하고 방대
한 계산법을 더는 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수만번이나 되는 계산에서
한번의 실수라도 있으면 력
서는 망치고마는 법이다.

누구나 손쉽게 력서를 수
정할수 있게 하는 그런 계산
법을 찾으리라.

강보는 머리를 싸매고 새
로운 일에 몰두하였다.

한달, 두달, 세월은 사정
없이 흘러가고있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
해보지 않은 일이어서인지

강보는 좀처럼 일자리를 내
지 못하였다. 수시의 날마다
를 헤칠수록 점점 더 끝없는
미궁에 빠져드는것만 같
았다.

세상을 놀래우 큰일을 해
제까지 하였던 강보는 몇달
만에 두손을 털고 나갔고말
였다.

아, 이에서 혈기를 부린다
고 하였던가...

반년나타 태사숙에 나와
널 위해주고싶구나.

그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
며 그늘이 짙게 어린 이들의
얼굴을 본 김씨의 마음은 불
안해졌다.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일
이 있었느냐?》

강보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 어머니! 제가 지내
육십을 부린것 같소이다. 너
무나도 자기를 모르고 력서
를 빨리 만들어내는 비결을



살던 강보는 풀이 죽어 터벌
릴 짐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하얀 명주에 수를 놓고있
었다.

지금껏 어머니가 한번도
수를 놓는 일을 보지 못하
였던 강보는 인사를 하고나
서 물었다.

《어머님! 수를 놓아서 무
엇에 쓰려고 하오이까?》

김씨는 하던 일을 밀어놓
으며 나직이 말했다.

《내가 그동안 새 력서를
내놓느라하고 예를 수태 썼
는데 나는 도마래 없구나. 늦
게나마 농가마을의 4계절을
수놓아서 보다 큰일을 하는

장의 말에 의하면 이 크립
은 겨울철이나 추운 계절
이 바뀌는 시기에 생길수
있는 동상이나 동창을 예
방하거나 치료하는데 쓰인
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연구소
에서 개발한 치료용화장품
들은 약효가 뛰어나 세계
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개
성고려인삼을 비롯하여 울
금, 속썩은풀(황금), 금은
화, 벌꿀 등 천연식물들을
첨단물공학적방법으로
추출, 분리, 정제하여 얻
은 유효성분들로 제조하였
기때문에 치료효과가 높
다고 한다.

《은하수》 치료용화장품
들을 세계적 경쟁력을 가
진 명제품, 명상품을 만들
일념을 안고 화장품연구소
의 연구자들은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공화국의 국가발명국에서
개발한 건강에 좋고 피부미
용효과가 높은 첫산균제품들
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세계적으로 이롭난 개성고
려인삼과 보약으로 널리 쓰
이고있는 마, 여러가지 낱알
을 발효시켜 만든 복합첫산
균이 배합된 음료용 인산첫
산균복합영양가루는 몸을 보
하고 정력을 돋우며 병저항
성을 높여주는 기능성건강식
품이다.

사해주고 손님은 대체로 웃
자리에 앉았다.

손님이 집안에 들어오면
너스름은 하던 일을 멈추고
손님과 주인의 이야기에 방
해가 되지 않도록 자식들의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들렸
으며 인차 부엌칸으로 내려
서군 하였다.

아무리 가난한 살림에
도 모처럼 찾아온 손님에
게는 성의껏 식사를 마련
해주거나 탁배기나 군감자
라도 틀며 허물없이 이야
기를 나누었다.

혹시 날이 저물어 가지
못하는 길손이 찾아오면
어느 집의 대문을 두드려
도 따끈한 아메목을 내어
주고 저녁을 대접하였으
면히 목이아도록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손님과
헤어질 때 대문밖이나 동
구밖까지 따라나와 배례
하였으며 길손에게는 길잡이
나 로자도 아낌없이 보태
주군 하였다.

본사기자

술을 후 내쉬었다.

《정말 별수가 없겠느냐?》

《어머니, 세상을 둘러봐
도 자수 새 력서를 만들어내
는 자수는 없는줄로 아요이
다. 이웃나라들에서도 이전
의 낡은 력서를 그대로 쓰고
있소이다.》

김씨는 아들에 대한 실
망감이 크게 느껴졌지만
담담한 기색으로 입을 열
었다.

《이웃나라들이 못해서
우리도 못해야 한다는 그생
각이 틀렸다.》 김씨는 길을
을 뚫고나서 계속 말을 이
었다.

《년 벌써 아버지의 유언
을 잊었구나. 아무래도 긴말
을 해야 할가부다.

옛말 같지만 좀 들어봐라.
옛적에 백서성을 가진 마
의(말의 병을 고치는 수의
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하루도 말을 떠나 산
적이 없더라. 하기에 그
사람은 살이 찌서 기름기가
번지르르한 말이라도 등뼈
의 털이 곧수신것만 보고
도 내장의 격막(내장과 내
장사이의 막)에 풀병이 들
었으며 제때에 손을 쓰지
않으면 몇달만에 죽는다는
것까지 내다보았더구나.
지어는 말을 음모리만 듣고
서도 무슨 병에 걸렸다는것
까지 다 알아맞혔다고 하
더라.

또 백여년전 사람인 리상
로는 젊어서 술꾼들과 밀려
다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의
술을 배워 명사가 되었다고
한다.

누구든지 그들처럼 뜻을
품고 정신을 모아 피라는 노
력을 한다면 반드시 빛을 보
게 되느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별도리가 없을것 같소이
다.》

강보는 구들이 끼치게 한

201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9)

관록있는 사격선수 박명원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 사
격선수인 박명원은 여러 국
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쳐냈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제
14차 아시아사격선수권대회
는 국제올림픽경기대회 참
가자격경탈전을 동반한것으
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
을 모았다.

제14차 아시아사격선수권
대회에서 그는 나라나는 목
표들을 단번준, 빠른 격발
로 명중시켜 남자 10m이동
목표혼합개인경기에서 금메
달을 쟁취하였다.

그는 제18차 아시아경기대
회 10m이동목표혼합사격경
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것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 국내경

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
여주었다.

그는 국내경기들에서 수많
은 금메달을 쟁취하였으며
4개의 개인총목경기에서 새
기록을 세웠다.

그는 제49차 세계사격선수
권대회 청년급경기에서 금메
달 1개와 은메달 3개, 동메
달 2개, 제16차 아시아경기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
달 1개를 획득하였으며 제1
차 세계이동목표사격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52차 국제사격스포츠클
맹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남
자 10m이동목표사격경기
와 남자 10m이동목표혼합
사격 단체경기, 50m이동목

표혼합사격 단체경기들에서
도 관록있는 사격선수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그는 2019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
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효능 높은 첫산균제품들

한 효과를 나타낸다. 특
히 어린이들의 영양보충에
매우 좋다.

복합첫산균과 농마, 우유
가루, 사랑가루와 광물질 등

으로 이루어진 기능성건강식
품인 복합첫산균가루는 장내
질병의 요인으로 되는 병원
성세균들의 발육을 억제할뿐
한데

이 가루를 정상적으로 먹
으면 장운동이 활성화되어
소화흡수기능, 간기능이 높
아지고 로화를 방지하는데서
효과를 볼수 있다.

첫산균젤형수는 건강에 좋
은 첫산균의 작용으로 인체
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나쁜
균을 억제하여 짧은 기간에
치료효과를 볼수 있게 한다.
또한 미안수나 목욕후 피부
보호제로도 쓸수 있다.

본사기자



달래볶음



냉이조개국

용하였는데 그가운데는 달래
장도 있다.

달래장만드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음식감(5명분)으로 달래
300g, 돼지고기 100g, 고추
30g, 된장 20g, 고추장 20g,
기름 10g, 참기름 5g, 파
20g을 준비한다.

달래는 정력증진과
건강보호를 위한 약으
로 쓰는데 위병, 신경의
약, 불면증, 만성기관지염,
백날기침 등에 달여먹는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달래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생활에 널리 리

용하였는데 그가운데는 달래
장도 있다.

달래장만드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음식감(5명분)으로 달래
300g, 돼지고기 100g, 고추
30g, 된장 20g, 고추장 20g,
기름 10g, 참기름 5g, 파
20g을 준비한다.

달래는 정력증진과
건강보호를 위한 약으
로 쓰는데 위병, 신경의
약, 불면증, 만성기관지염,
백날기침 등에 달여먹는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달래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생활에 널리 리

두해살이풀이며 들에 많이
나오고 길가에서도 잘 자
란다.

냉이는 고혈압, 만성간
염, 만성콩팥염, 만성기
관지염, 부종, 빈혈,
출혈에 좋은 작용을
한다.

봄철에 냉이를 뿌리
채로 캐서 깨끗이 씻은 다음
조개, 말린 명태, 새우 등을
넣고 끓이면 별맛이다.

냉이국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음식감으로 냉이, 소고기,
모시조개, 된장, 고추장을
준비한다.

냉이는 끓는 물에 살
짝 데치고 소고기는 얇
게 썬다.

살갗은 물에 된장과 고추
장을 풀어두고 약한 불에서
끓인다.

소고기를 끓는 장물에 넣
는다. 다시 끓여오르면 모
시조개살과 냉이를 두근
이 우리나라도 오래 끓
인다.

본사기자

봄철나물음식

300g, 돼지고기 100g, 고추
30g, 된장 20g, 고추장 20g,
기름 10g, 참기름 5g, 파
20g을 준비한다.

달래는 정력증진과
건강보호를 위한 약으
로 쓰는데 위병, 신경의
약, 불면증, 만성기관지염,
백날기침 등에 달여먹는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달래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생활에 널리 리

냉이국

냉이는 배추과에 속하는

《국조기략》은 17세
기초까지의 조선봉건왕
조의 력사를 개발하여
쓴 책이다.

11권 5책의 필사본으
로 전해지는 이 책은 내
편(제1권-제4권), 외
편(제5권-제6권),
속편(제7권-제10권),
별편(11권)으로 나뉘어
있다.

내편에서는 조선봉건
왕조 각 왕대의 력사를
왕조사적원장에서 매우
간략하게 썼고 외편에
서는 이 시기 봉건왕정
안에서 벌어진 정치적사
건, 사면 등을 간단히 서
술하였다.

속편에는 지배계급안

에서 벌어진 권력다툼인
당파싸움에 관한 서술이
실려있는데 매 개 사건에
대하여 그전 학자들의
견해와 함께 필자의 의
견을 적었다.

별편에는 임진조국전쟁
등에 대한것이 쓰여있다.
외편과 속편에는 봉
건사(개인이 쓴 력사)와
문집에 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있어 이 시기
력사연구의 보충자료를
로서 일정한 가치를 가
진다.

본사기자

유물

고을원의 시 짓기

고을원이 심심한터에 한
아전을 불러 시를 지으라고
하니 아전이 《원님게서 운
을 내십시오.》라고 하였다.

원이 《드리울 수》 자를
내자 아전이 곧 《말우에
등자를 드리웠네.》라고 하였다.

원이 그에 맞는 글귀를 생
각해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
아 한참 갈자르더니 아전의
시구에 맞는 시를 읊는다는
것이 《나 역시 말우에 등자
를 드리웠네.》라고 하였다.